

# 가요계 IP 확장... 대형 신인 쏟아진다

NCT도쿄·베이비몬스터 데뷔  
오리지널 콘텐츠가 곧 경쟁력  
가상아이돌 메이브 활동 눈길



가상 아이돌 그룹 메이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 SM·YG 새 걸그룹 예고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각 기획사는 IP 확장의 차원에서 올해 신인 기대주를 잇따라 공개한다. 우선 하이브는 가수 겸 프로듀서 지코가 이끄는 산하 레이블 KOZ 소속 신인 보이그룹을 연내 선보인다.

◇ 신인 통한 IP 확장  
내로라하는 기획사들이 이처럼 신인 데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끊임없이 IP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신인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면 다양한 2차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에스파는 신인 때부터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관 영상으로 팬들을 끌어모았고, 르세라핌은 세계관을 다른 웹툰·웹소설 '크림슨하트'(Crimson Heart)를 선보이고 있다.

SM은 올해 NCT의 일본 팀인 NCT 도쿄를 비롯해 신인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데뷔시킨다. 신인 걸그룹은 이소수현 공동대표이사, 보이그룹은 탁영준 현 공동대표이사가 각각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아버지로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15일 관훈포럼에서 "미국 등 주류 시장에서 K팝의 성장률이 최근 둔화하고 있다"며 "한류 인기가 꾸준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 동남아시아에서도 K팝은 최근 역성장 추세를 보인다. 동남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음반 수출 성장률은 지난해 전년 대비 -30%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 현실 세계 넘어서는 K팝  
신인 확보 경쟁은 비단 현실 세계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SM은 특히 최근 팬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해 신인 걸그룹 후보 연습생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속해 세계를 뒤흔들 슈퍼스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넷마블에프앤씨의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올해 1월 가상아이돌 그룹 '메이브'(MAIVE)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YG는 글로벌 슈퍼스타로 부상한 블랙핑크의 후배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데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설립자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3년 6개월 만에 복귀하는 등 프로젝트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카카오 역시 훌륭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 이 플랫폼에 태운 IP가 절실했다는 평가다.

카카오엔터는 넷마블에프앤씨의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올해 1월 가상아이돌 그룹 '메이브'(MAIVE)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YG는 이미 공개된 루카, 파리아, 아사, 아현, 하람, 로라, 치키타 일곱 예비 멤버를 대상으로 마지막 공개 평가를 진행해 최종 멤버를 추려낼 방침이다.

하이브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IP 확장 수단은 바로 신인 데뷔다.

SM도 올해 에스파 세계관 속 조력자 캐릭터 '나이비스'를 가상 가수로 데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에이티즈의 소속사 KQ도 신인 그룹 싸이커스를 이달 30일 내놓는다.

# 넷플릭스 '퀸메이커' 김희애·문소리 호흡

정치물 소재...내달 14일 공개  
넷플릭스는 새 시리즈 '퀸메이커'에서 배우 김희애와 문소리가 호흡을 맞춘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 오경숙을 서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희애는 대기업 전라기획을 쥐락펴락하던 황도희 역을 맡는다.

'정의의 코벌스'라 불리는 변호사 출신 오경숙은 문소리가 연기한다. 연출을 맡은 오진석 감독은 "정치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각 캐릭터의 스타일과 연기 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

'퀸메이커'는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 황도희가 약자의 편에서 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인권

현장을 진두지휘한다.

SM도 올해 에스파 세계관 속 조력자 캐릭터 '나이비스'를 가상 가수로 데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네 한바퀴 11:55 한식의 마음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해 불만 아침 1부 8:05 해 불만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오아시스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너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아침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 좋아 11:15 헬로키즈 체육교실 11:30 와썹 프리매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시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6:10 세계대마케팅 7:00 뽀뽀뽀 뽀로로 7:15 우당탕탕 온화안잔단 7:45 뽀뽀뽀 뽀로로 8:00 뽀뽀뽀 유채원 8:20 출동! 슈퍼핑크 9:05 슈퍼퍼프 잉글리시 9:20 빅블루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마케팅 12:00 EBS 뉴스12 12:10 다문화 고부연 1:00 바닷가 사람들 2:45 한국의 둘레길 3:35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퍼피 5:00 EBS 뉴스 6:00 미니특공대 브레인저스 7:00 미라클러스 레이더비그와 블랙캣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우라밀 겨우키 8:30 내 눈에 콩깍지 9:00 KBS뉴스9 10:00 가요무대 10:55 더 라이브 11:30 뉴스라인	6:5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이별도 리콜이냐? 9:50 오아시스 11:00 개는 훌륭하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매너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안싸우면 다행이야 10: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생활의 달인 10:00 꽃선비 열애사 11:15 수학 없는 수학여행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인간과 바다 8:40 세계대마케팅 9:30 한국여행 9:50 EBS 다크프라임 10:45 앳터사이클 다이어리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식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생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3월 20일 (음력 2월 29일)

 <b>子</b> 48년생 마음 중심이 우선이다. 60년생 많은 대인관계를 만들어라. 72년생 서두르면 손해 생긴다. 84년생 미래를 위해 실력을 쌓아두자.	 <b>辰</b> 52년생 적극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움직여라. 64년생 애정은 좋다. 76년생 못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88년생 생 사소한 욕심은 버려라.	 <b>申</b> 44년생 욕심은 버려라. 56년생 생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지만 그만한 것도 없다. 68년생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80년생 마음에 맞는 동료가 생긴다.
 <b>丑</b> 49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다. 61년생 말보다 실천이 먼저다. 73년생 심신이 피로하니 정신건강을 위해 휴식 하라. 85년생 변화를 주지 마라.	 <b>巳</b> 41년생 아랫사람에게 야망을 베풀어라. 53년생 실수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피라. 65년생 생 고집은 접고 충고를 받아들여라. 77년생 세상에 공짜는 없다.	 <b>酉</b> 45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57년생 가족의 일로 고민할 일 생긴다. 69년생 사회는 냉정하다. 81년생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도 크다.
 <b>寅</b> 50년생 마음 중심 잡아라. 62년생 여행을 떠나도 좋은 시기다. 74년생 여러 명과 어울려 경험을 쌓아라. 86년생 서두르면 느리다.	 <b>午</b> 42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54년생 지난 것에 미련 버려라. 66년생 지혜가 필요하니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78년생 앞만 보고 달려라.	 <b>戌</b> 46년생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다. 58년생 감정적인 행동을 조심하라. 70년생 긍정적인 생각이 성공을 부른다. 82년생 밀고 나가 추진하라.
 <b>卯</b> 51년생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 63년생 오해받을 수 있으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75년생 인내로 좋은 결과 이 어진다. 87년생 다름을 조심하라.	 <b>未</b> 43년생 여유를 가져라. 55년생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67년생 불안감 떨치고 차근차근 해나라. 79년생 의혹은 한순간에 풀린다.	 <b>亥</b> 47년생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라. 59년생 동서분주하다. 71년생 점차 호전되니 걱정하지 마라. 83년생 부족함 없는 하루다.

# 대형 트로트 오디션 초라한 종영

화제성·시청률 부진  
출연자 학폭 논란도



'불타는 트롯맨' 톱7 /MBN 제공

화려한 출발을 알리며 트로트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대형 트로트 오디션들이 최근 아쉬움을 남긴 채 종영했다.

지난해 MBN과 TV조선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2'을 선보이며 연말 트로트 판을 키웠지만 기대에 비해 화제성은 미약했다.

이달 16일 종영한 '미스터트롯2'는 TV조선이 '미스트롯1·2'와 '미스터트롯1'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프로젝트였다.

화제성과 시청률 모두 앞선 시즌들에 미치지 못했다. 심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연 구성이나 편집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아 예상할 수 있는 전개가 반복됐고, 새로운 팬층을 유입하는 데 실패했다.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은 많았지만 송가인, 임영웅에 미치는 스타를 만들어내지도 못했다.

'미스터트롯2' 최종회 시청률은 24.0%를 기록했다. 트로트 장르 특성상 고정 시청자가 있으니 타 예능에 비해 높은 시청률이지만, '미스터트롯1' 때 시청률(35.7%)을 고려하면 한참 아쉬운 성적이다.

투표수를 들여다보면 더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임영웅이 진(眞)이었던 '미스터트롯' 결승전 실시간 투표수는 773만이었지만, '미스터트롯2' 결승전 투표수는 252만에 그쳤다.

이달 7일 종영한 MBN 트로트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타는 트롯맨'은 TV조선에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만든 서혜진 PD가 독립 제작사를 차려 나온 뒤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서 PD는 방송을 앞두고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타임(프로그램)은 MZ세대의 반란이다. 트로트에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신인류 트롯맨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기존 트로트 프로그램보다 연령대는 낮아졌지만, 특정 참가자에게만 분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잡음이 일었다.

출연자 가운데 황영웅이 독보적인 인기를 얻으며 나름의 화제성을 견인했지만, 과거 폭행 전과와 학교폭력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승 1차전이 방송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황영웅 팬들의 불만까지 더해지며 위기를 맞았다.

최종회 시청률은 1부 14.8%, 2부 16.2%, 3부 15.6%로 자체 최고 시청률 16.6%(10회)를 뛰어넘지 못했다. 최종회에서 우승자가 가려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 이제훈, 자비 없는 복수 대행으로 '쾌감'

'모범택시2' 시청률 16% 돌파

이제훈의 속 시원한 복수 대행극 '모범택시2'가 시청률 16%를 돌파했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 8회 시청률은 16.0%로 집계됐다.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전날 방송에서는 신도들의 믿음을 이용해 온갖 비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이버 종교단체 순매교를 붕괴시키는 과정이 속 시원하게 펼쳐졌다.

무속인으로 위장한 도기(이제훈 분)는 사이버 교주 옥주만(안상우)에게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며 자신을 맹신하게 했다.

신도들이 모인 예배 시간에 옥주만의 웃과 벽

화를 겁게 물들여 옥주만을 패닉으로 몰고 가고, 퇴마를 방자해 옥주만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퍼붓는 모습은 사이버 교주를 향한 분노를 쾌감으로 바꿨다.

'모범택시2'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제훈이 거침없이 복수를 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으로 법이 처단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단죄하며 카타르시스를 안기고 있다.

첫회 12.1%로 출발한 '모범택시2' 시청률은 5회 14.7%로 상승세를 보였고, 8회 16%로 주말드라마 1위를 차지했다.

전날 방송된 조승우 주연의 JTBC 금토드라마 '신성한 이혼' 시청률은 5.7%, tvN 토일드라마 '판도라: 조작된 낙원'은 3.9%, MBC 금토드라마 '꼭두의 계절'은 1.3%로 집계됐다.

신도들이 모인 예배 시간에 옥주만의 웃과 벽